

“처벌이 아닌 기회”

단 상



안명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가진 의미를 현장에서 실감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앞 서, 일정기간 동안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변화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는 약 6개월간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하고 생활 전반을 함께 점검하며 재범을 막는 역할 을 맡는다.

이 활동은 2022년 12월, 아내가 먼저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부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었다.

2023년 여름, 고창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맡게 되었다.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순간적 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으면서 사건은 경찰 신고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학생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와의 6 개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나는 ‘관리’가 아닌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첫 만남이 있어야, 변화도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후 매달 1~2회 대면 상담과 수시 전화 상담을 병행하며, 월별 미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

첫 달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슬펐던 일과 가장 행복했던 일’을 글로 쓰게 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보는 과정이었다.

둘째 달에는 ‘25살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미래를 그려보게 했다.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셋째 달에는 선도위원이 전달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다.

넷째 달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

해 청소년 자원봉사를 1회 진행하도록 했다.

다섯째 달에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했다. 평소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가 글로 전해졌다.

여섯째 달에는 부모님 또는 선도위원과 함께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느끼게 했다.

6개월이 지나갈수록 이 학생의 표정과 말투,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도 했던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 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 했다.

여러 청소년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

많은 경우 문제의 시작은 가정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이혼, 잦은 다툼, 정서적 단절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 있었다.

반대로 부모의 사랑과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가정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자 가치관이 형성되는 첫 공간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역할은 단순히 재범을 막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나는 존엄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다시 갖도록 돕는 일이다. 처벌이 아닌 기회를 통해 한 청소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결서히 지켜보는 일이다.

나는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을 6개월 동안 놓지 않았다.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이었다.

6개월의 동행은 짧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한 아이의 미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된다.

처음 전진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 6개월의 의미였다. 함께 한 약속 같아,

이제명 대통령을 보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수 욕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며칠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쏟아낸 메시지는 마치 쌓였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시에 분출한 것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무려 10여 건이나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점잖은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놓고 욕설을 하지 않았을 뿐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성과가 내지 못한다며 따르 분노를 지어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끝까지 믿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계곡 정비나 주차 5000 달성처럼...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유예 종료와 관련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아 침 헛 살

고 하 승 주필

할 일도 많은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과 관련해 이토록 강경한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임 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대책은 벌써 네 차례나 나왔지만, 집값은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9.7 공급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는 1.29 공급 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비롯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격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제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차적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했듯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민간이 책임지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숨통이 막혀 버렸다.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인해 사업은 멈춰버렸다.

10.15 대책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엉뚱하게 ‘문(文)에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실패하는 건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럴 바로잡아야 하는데 자신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버럭 화부터 내고 있으니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동호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반지수를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그렇면서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을 헐뜯는 곳이 아니다. 분노조절하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명 대통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재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성공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까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국민을 향해 불같이 ‘버럭’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이런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기 고

AI 시대, 소방안전관리자 여전히 유효한가



시상수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장

2002년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원년’을 선언했다. 감시카메라 작은 통신 집안 불이만 관리자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쏟아졌다. 그 무렵 일부에서는 ‘소방시설이 무산화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기술의 시간강조와 현실의 시간강조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물은 여전히 저가의 유선 감지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도와 사람의 인식은 기술보다 훨씬 더디게 변화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만약 속에서는 2003년 ‘이통’이 하늘을 날았지만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AI는 마치 틀에서 갇혀나온 양서류처럼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 ‘전이적 존재’에 가깝다. 특히 소방 분야에서는 그 간극이 더욱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물속에서 시작해 불을 발견하고, 전기의 시대를 거쳐 이제 AI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소방의 흐름도 이와 닮아 있다.

그러나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점이다. 2023년 서울의 한 고층빌딩에서는 자동경보가 울렸지만 배연관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순간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즉시 수동제어로 배연설비를 가동해 연기 확산을 막았다.

이 사례들은 설비가 아무리 정교

해도 상황을 맥락 속에서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명확하다. AI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더 정교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AI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읽어 현장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대응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발전의 방향은 ‘AI 대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 AI와 인간의 협업이다.

AI 기반 설비는 끊임없이 디지털 신호를 생산한다. 이러한 신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내고 그 안에서 이상 징후를 구분해 현장의 특성과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동화가 코딩화될수록 오작동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쏟아내듯 받아들이기보다 기술이 놓치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판단력 역시 더욱 중요해진다.

결국 AI 시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과 현장을 잇는 조정자이자 자동화의 빈틈을 보완하는 검증자로 진화해야 한다.

AI 기술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기계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이 ‘지금 여기’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읽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완전히 사라질 날은 하나 뿐이다. 그 안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며, 생명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AI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과 의미를 읽는 존재는 결국 현장을 아는 사람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 마지막 판단의 무게는 현장을 아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지금껏 그랬듯, AI 시대에도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심장’을 뛰게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실패소생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대표 (02)3678-2114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3678-2114	FAX (02)762-8223
정리·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2926-0392
사회·수도본부 (02)2926-0314	편집부 (02)2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입국 (02)2926-0164
광고본부 (02)2926-0164	윤번 (02)2926-7955
www.siminilbo.co.kr	

발행·편집인 조순환 편집국장 이영한 인쇄인 정용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5일 창간 - 2025년 6월 1일 제262호

2001년 10월 9일 등록번호 서울, 7100028호 (1994)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 우수 브랜드 쌀’ 4년 연속 수상 영호진미 합천쌀

